

초보자를 위한 봉군관리



가야양봉원
대표 김상태

• **소상** : 벌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꿀벌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된다. 나왕, 오동, 스키나무 등으로 제작되며 랑그스토로스 씨의 규격 소상이어야 한다.

• **계상** : 단상에 벌이 많을 때 계상으로 올린다. 이

때 계상격왕판을 부착한다. 계상으로 많은 수밀을 얻을 수 있다.

• **소초** : 소상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바탕을 말하는데 황밀과 파르핀을 적당히 배합하여 제작되는데 소방규격이 정확하며 늘어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벌이 격리판으로 넘어와야 조소력이 있으며 낮에 소비끝장 다음에 벌려 놓았다가 해질무렵에 삽입한다. 조소력이 없을 때 사양을 시키도록한다. 요즘소초는 물파르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뜨지 않아 하자가 별로 없는 양호한 편이다.

• **소초광** : 소광에다 소초를 붙힌것을 말하며 1980년대만 하여도 소광을 조립하여 소초를 매선기로 붙혀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조립되어 나와 편리하다.

• **격리판** : 벌들은 공간을 싫어한다. 군세에 맞도록 격리해 주어야 한다. 사양기 대응으로 사용해도 된다.

• **사양기** : 꿀벌식량을 줄때 사용하는 기구로 메니아 판으로 제작되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파르핀물에 담구어 제작되는데 물이 새지 않아야 된다. 사양기로 급수를 해서는 안된다.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PVC 사양기는 조춘에 차가워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사양기 철망을 삽입한다. 사양액이 썰경우 새는 부분에 분필을 칠하고 대두못을 박아 파르핀녹힌 물을 새는 부위에 굳어지게하면 물이 새지 않는다.

• **개포** : 소상뚜껑을 덮기 전에 덮는 천으로 공기가 잘 통해야된다. 비교적 마대가 좋다. 이동시에는 반쯤 개방하고 이동하면 안전하다. 겨울에 신문지 포장은 좋지 않다.

• **소문마개** : 군세에 따라 소문을 조정하는데 유밀기에는 약 15~20cm, 월동시에는 약 2~3cm

정도 개방한다. 도봉시에는 약 1cm정도다.

• **소문 착육판** : 유밀시에 벌이 소문 앞에 떨어지기어 올라 갈 수 있도록 부착하는 김방대로 대열할 수 있다. 흙으로 판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흙으로도 가능하다.

• **하이프틀** : 양봉관리에 제일 필요로 하는 기구다. 이것으로 소비 사이를 때어 소비를 빼내어 내검한다. 이동시 하이프틀 혼연기, 면포, 망치, 테이프를 별도 보관되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전대에 심는다.

• **내검칼** : 봉군내검시 사용하며 숫벌집을 도려낸다. 왕대 제거 및 수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면포** : 꿀벌관리시 벌에 쓰이지 않도록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방면포, 간이면포, 특면포, 4각면포 등이 있다.

• **고무장갑** : 벌이 손에 쓰지 않게하는 장갑으로 장갑내무에 베가 붙어 땀이 나지 않아야 된다. 관리에 불편하면 엄지손 금지손가락을 가위로 약 3cm가량 베어 버린다.

• **소비잡기** : 초심 관리자가 주로 사용하는데 소비 1매를 집어올려 내검하는 기구이다.

• **소비고정강철** : 이동시 소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강철로써 가장자리에 있는 소비옆대를 대고 타원형으로 쪼른다. 사양기는 옆으로 밀쳐놓는다.

• **소문급수기** : 벌들은 다량의 물을 필요로한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투명 PVC통이다. 약제를 혼합해도 좋다. 단 사양은 밤에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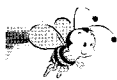
• **봉솔** : 채밀시에 필요하며 물을 묻혀서 사용한다. 물에다 항생제를 타면 좋다.

• **수직격왕판** : 단상에 꿀을 많이 채밀하기 위한 수단이며 산란이 제한되어 산란방이 꿀이 저밀되는 이득이다. 왕봉이 차단되어야 하며 대군에는 일일이 내검할 필요없이 중간에다 삽입하면 편리하다.

• **왕대보호기** : 왕대를 봉한 숙대(익은 것)를 내검칼로 도려내어 다른통에 소비 전후 공간에 삽입하여 처녀왕봉을 개방하는 기구이다.

• **왕롱** : 유충롱으로 별도 제작된 것도 있고 왕봉을 넣어 왕봉 유입시 공격할 때 가두어 동화





시킨다. 자연 분봉시 여러마리 구왕 처녀왕 못쳐져 있을때 한마리씩 가두어 분리한다.

- **혼연기** : 양봉 관리에 필수기구로 벌이 사나워져 쓸때 본기를 사용하는데 재료로서 술이 좋으며 그외 알파탄, 짚, 걸레, 제주도 소풍이 오래간다.
- **화분채취기** : 꽃가루 채집시 사용하는 기구로서 현재까지 대봉채분기, 흥원채분기, 석상환채분기 등이 있다.
- **합봉망** : 양봉합봉시 서로간의 냄새로 융화하여 합봉되며 도봉을 못한다. 1~2일간 두었다가 빼내면된다.
- **채밀기** : 벌꿀채밀시 원심력으로 꿀을 채밀하는데 자동채밀기, 방사채밀기, 회전채밀기, 고정채밀기 등으로 분류된다. 성능에 따라 회전수를 조정한다.
- **밀도** : 소비에 봉개된 꿀을 베어내어 채밀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밀도 2개를 교대로 하면 능률적이다. 채밀전 칼날을 세운다.
- **채유광** : 로얄제리 생산시 인공왕대 조성시에 사용된다. 무왕군에서 잘 생산된다.
- **호봉 망사, 호봉 길라** : 8~10월 양봉해적으로 말벌(호봉)예방용으로 사용된다.

호봉망사 설치법-벌통을 일렬로 배열한 후 벌통 허리띠에 못(1군에 전면 3군데)을 치고 망사를 못에 걸어 기다랗게 당겨서 못을 박는다.
 뚜껑을 열어 내검할 수 있도록 한다. 망사 뒤에 있는 공간은 스티로폼이나 말린 풀로 가리면 된다.
 호봉 길라 -봉상위에다 분제를 펴고 죽은 말벌을 1~2마리 세워서 붙혀준다.
 봉장에 일벌은 잘붙지 않는다. 값도 저렴해서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외 4군상 자동사양기, 무이충기, 봉침기구 매선기, 밀여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 채밀법

유밀기에 저밀방 봉개가 1/3이상되면 채밀할 계획과 일자를 정할 수 있다. 밀방은 흰빛을 띄고 밀납은 비늘모양으로 볼 수 있고 왕대를 조성하려는 무렵에 채밀한다.

채밀기구 : 채밀기, 봉솔, 밀도 2개 빈봉상4개에다 개포만 옆면 한쪽만 못으로 부착(철망못), 혼연기, 면포, 벌꿀규격드럼(최근사용품)

- ① 채밀은 이른 새벽부터 농도가 좋은 오전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
- ② 채밀기는 천막안에 고정시킨다. 벌통안에 돌을 넣고 뚜껑에 못을 치고 그위에 부착시킨다.
- ③ 필요한 인원 4~5명이 확보되면 혼연기를 쏘스로 피워 연기를 내게하고 밀도 가열기에 물을 끓인다.
- ④ 면포를 쓰고(하절기 더울때는 팬티만 입어도 무방) 뒤쪽부터 차례로 벌을 털기 시작한다. 개포를 벗기는 동시에 혼연을 하여 벌이 꿀을 흠뻑 먹게한다.
- ⑤ 소비에 붙은 벌을 세계 흔들어 벌을 털은 봉솔을 한두번 쓸은 후 봉상 뒷면에 우선 세워 둔다.
- ⑥ 세워둔 소비장을 다시 벌이 붙지 않도록 봉솔로 쓸어 개포가 붙은 빈소상(뚜껑없이 사용)에 넣어 개포를 신속한 동작으로 덮는다. 봉솔을 사용할때 다이메톤소다 용액에 적셔서 사용한다. 통에 떨어진 벌은 개포를 적당히 덮고 뚜껑을 비스듬히 엎어둔다. 털은 소비를 채밀실까지 운반한다.
- ⑦ 밀도가열기에 끓인물에서 밀도를 들어내어 봉개된 밀방부분을 얇게 베어낸다.
- ⑧ 그 다음 소비장을 채밀기에 넣어 유충이 빠지지 않게끔 7~8회 손잡이로 회전시킨다.
- ⑨ 꿀이 채밀기 원심력으로 완전히 빠진후 손으로 집어내어 솟아 오른 밀방을 다시 수평으로 잘라 고르고 수벌집 왕대조성을 파괴하여 정리한다.
- ⑩ 처음 4~5군의 소비는 다주지 말고 4~5매의 소비를 비축하여 6통째부터는 털은 즉시 소비매수 있는대로 넣어준다. 채밀이 다 끝난 후 남은 소비는 처음에 부족된 매수를 채워준다.
- ⑪ 꿀뽀 소비장을 벌에게 줄때는 산란장을 한 가운데 화분장은 양가에 공소비는 화분장에 다음에 각각 삽입한다.
- ⑫ 도봉이 일어날 우려성으로 한군 다음것을 툄다. 1군에 반쯤 털고 난 뒤 남겨둔 소비장 2매정도 넣어주어 우선 벌이 거기에 붙게 한다. 다 털은후 처음 빼놓은 소비장으로 전자 설명한대로 배열에 맞추어 원래 소비 수대로 삽입해주면 벌들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한다.
- ⑬ 채밀이 끝나면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황밀을 빼고 특히 도봉에 주의하며 며칠후 왕봉을 확인한다.

● 채밀요령

